

문서번호 경제2000-908

수 신 공정거래위원회

발 신 경제민주화위원회(위원장 장하성, 담당 박근용 간사 723-5052 pec@pspd.org)

제 목 삼성그룹 인터넷통신벤처기업 조사 요청

날 짜 2000. 9. 28. (총 1 쪽)

삼성그룹 관련 8개 인터넷통신벤처기업의 변칙증여의혹에 대한 조사요청

.....

1. 귀 위원회는 지난 8월 17일 4대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조사에서 삼성그룹 등의 인터넷 벤처기업이 재벌2~3세의 변칙증여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에 대해 조사를 벌일 계획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.
2.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9월 18일 삼성그룹의 계열사인 서울통신기술과 삼성전자간의 부당거래행위와 재벌3세에 대한 변칙증여 의혹에 대해 조사요청을 한 바 있는데, 이미 조사요청한 서울통신기술뿐만 아니라 삼성그룹 관계사인 e삼성 등 8개 인터넷·통신 벤처기업(명단 아래)에 대해서도 변칙증여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조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. 아래의 8개 인터넷·통신 벤처기업은 삼성그룹 이근희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씨가 최대주주인 바, 최근 사회적으로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인터넷 벤처기업을 통한 재벌2~3세로의 변칙증여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보입니다.
 ○ 조사요청기업(8개사) : e삼성, e삼성인터넷서널, cgi.com, (주)뱅크풀, (주)가치네트, (주)이니스, (주)Fn가이드, 인스밸리
3. 귀 위원회가 4대 그룹 인터넷벤처기업의 변칙증여를 조사할 때 이미 조사요청을 했던 서울통신기술뿐만 아니라 위 8개 기업도 추가하여 조사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. 감사합니다. 끝.

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·박상증·박은정